

“ 동족을 위한 큰 근심과 고통 ”

■ 이종윤 원로목사

사도 바울은 히브리인으로 신앙적 애국심이 강한 모범 크리스천이요 시민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주께 아뢰라고 가르친 그가 동족을 위해서는 왜 큰 근심과 고통이 있다고 했을까? 자기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그가 같은 배를 타고 같은 운명에 처한 동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는 길로 치닫고 있는 것에 대하여 큰 근심과 심한 고통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다. 민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구원을 받는다는 신앙적 차원의 애국심을 가진 바울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애국심과 차원이 다른 애국심을 말하고 있다.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바울이 말하는 애국심은 가질 수가 없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국가의 흥망성쇠를 한 손에 쥐고 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만이 진정한 애국자라 할 수 있다. 예수 외에 구원을 위해 다른 이들을 주신 적이 없다는 믿음을 가진 이가 민족 구원, 나라 사랑이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는 백성 되는 길임을 확신하고 그 일에 목숨을 바치는 일이 애국하는 길임을 실천하게 되는 것이다. 흔히 애국심이란 국가라는 어떤 실체를 사랑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이들이 많다. 국가는 21세기에 사는 이들에겐 공동이익 집단이다. 혈연, 지연, 이념을 말하나 나라 사랑이란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다. 오천만을 누가 전부 사랑할 수 있을까? 내 주변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애국심이다. 따라서 애국 또는 애국심은 사랑에 밀받침이 된 것이다. 동족으로부터 천대, 멸시, 핍박, 오해를 많이 받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유대인 40명이 그를 협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는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할 뿐 아니라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여 구원키 위해 목숨까지도 바쳤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동족의 위협과 위험을 경험했지만 끝까지 사랑함으로 복음을 전해 주었다. 모세 역시 하나님을 떠나 금송아지를 섬긴 이스라엘 백성 위해 주님의 책에서 내 이름을 지우시든가, 저들을 사해 달라고 기도한다. 그러나 모세는 살인자로 동족을 대신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을 수 없었다. 모세나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족을 위해 이 같은 기도를 한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들이 구원받을 것을 믿고 그들로 믿게 하려고 애끓는 사랑을 나타낸 것이다. 고통 받는 복녃땅 우리 형제자매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는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진정한 애국자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번민해 본 적이 있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당신의 가족, 친족, 이웃, 장애인, 타문화권 노동자, 노숙자, 가난한 자, 병든 자, 학대 받는 복한의 동족 위해 고통을 느끼고 비난을 받으면서도 저들을 돕고 사랑하면서 슬퍼해 본 적이 있는가.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자와 운명을 같이 한다는 뜻이다. 환자를 사랑하면 그의 병이 내게로 옮겨올 수 있고 죄인을 사랑하면 나도 죄인이라는 같은 운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애굽으로 갈 때 그곳까지 자의반 타의반으로 따라갔다. 결국 그는 애굽에서 돌에 맞아 죽었다. 희생 없는 애국, 애족은 말하지 말자. 사도 바울은 내 자신이 저주(anathema) 즉 천벌을 받아 지옥에 떨어질지언정 이스라엘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한다 했다. 바울의 애국심은 소망에 근거된 것이다. 사도는 자기를 죽이기까지 괴롭히는 유대인들이지만 그들에겐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이다.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그 후손들에게 구약에서 253회 반복 강조되었다.

뒤면으로 계속➡

앞면에서 계속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롬 11:26)는 소망을 바울은 확실히 가졌다. 나라를 빼앗긴 어두운 시절에 윤치오는 하나님이 보우하시우리나라 만세라는 애국가를 지었고 남궁억은 3.1운동으로 전국이 피범새로 악취를 풍길 때 삼천리반도 금수강산(비단실로 짜놓은 반도 강산)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했다. 유관순은 일본 헌병대에 끌려가 나는 하나님이 시켜서 대한독립만세를 불렀다고 했다. 남강 이승훈은 재판장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주신 제 자유를 지키면서 남의 자유를 존중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우리는 만세를 불렀다고 했다. 하나님을 소망으로 바라본 이들은 현실의 암울함 속에서도 미래에 주실 자유, 정의, 평화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랑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할 믿음, 소망, 사랑의 애국자다. 애국심은 위태로울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항상 있어야 한다. 우리는 동족을 위한 큰 근심과 고통을 당한 사도처럼 하나님 백성을 내 몸처럼 사랑하자.

-한국장로신문 [제 1365호] 2013년 5월 4일 발매-

| English Worship Service | |
|---------------------------------------|--|
| [Room 802, 11:20 am] | [Presider : Deacon Kichan Yoo] [Preacher : Pastor Euichang Kim] |
| * Call to Worship | John 4:24 Presider |
| * The Apostles' Creed | Congregation |
| * Doxology | 1 Congregation |
| Congregational Prayer | Sister Lumie Hwang |
| Hymn | 2 Congregation |
| Scripture Reading | Mark 2:1-12 Presider |
| Welcome/Fellowship | Congregation |
| Offering | Congregation |
| * Offering Hymn | 50 Congregation |
| * Offering Prayer | Presider |
| Anthem | Congregation |
| Sermon | "Jesus Heals the Paralytic" Pastor |
| * Hymn | 619 Congregation |
| * Benediction | Pastor |
| * Lord's Prayer Song | 635 Congregation |
| (* Please stand if you are available) | |

| | | |
|------------------------|---|---------------|
| 우리의 비전 (vision) |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 서울교회 QR코드 |
|------------------------|---|---------------|

| | |
|--|-------------------------|
| 부 목 사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 | 협동목사 김의창 심우진 전재홍 |
| 교육전도사 김은숙 박미라 최승원 | |
| 선 교 사 강아급주하나, 전광혜(서아시아), 이은준강혜경, 양재성이현주, 바켓잔(카자흐스탄) 스프로토바로이, 조남혜, (방글라데시), 이재을박병진(캄보디아), 전호진(미얀마), 조병연김희정, 우상식김경옥, 이삭, 비스타파. 사지, 예복(인도), 정상진홍성임(필라우),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이재훈박재연(마다가스카르), 김용진황경혜(말리위), 김영호서향정(러시아), 허창범현미순(일본), 김낙형·오정녀(케냐), 김종일백순미(타기노동자), 필리몬, 프로산또, 수레시, 수바스, 이경엽, 알로롱, 비시누쁘도, 보디소프, 린룸, 수란존(방글라데시), 감태식, 윤영모, 이금순, 김명일, 김덕수(군선교) | |

| | |
|--|---|
| | 전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이종윤 Emeritus Pastor Lee Jong-Yun, Ph. D., D.D., D. D. 135-835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210 Tel.558-1106 / Fax.558-2107 210 Daechi-dong Gangnam-gu Seoul, Korea http://www.iseoulchurch.or.kr/ |
|--|---|

“ 만군의 여호와여 ”

■ 삼상 1:9-18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곧바로 걷고 뛰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 걸음을 할 때면 잘 넘어집니다. 이것은 지구의 중력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이가 넘어졌다 일어나기를 반복하면서 중심을 잡고 근육이 갈라져 중력을 이기고 결국에는 자유롭게 걷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발목을 잡고 넘어뜨리는 사탄의 장난으로 잠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 일들은 마침내 서울교회와 한국교회의 근육을 강화시키고 면역력을 증가시켜서 더 강하게 힘치게 될 것입니다.

1. 간절함은 시대를 초월한다

고대 사회에서 아이가 없다는 것은 여인으로서 건드리 힘든 이름입니다. 사사시대 말기에 살았던 한나는 남편인 엘가의 사랑받는 아내였으나 아이를 낳지 못해서 남편의 첩인 브닌나의 멸시를 받으며 괴로움의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본문에 격분했다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오는 것으로 보아 한나의 당시 마음이 얼마나 처참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때 한나는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했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위대한 믿음의 아들 사무엘을 낳게 됩니다. 천사는 직접적으로 돕고 사단은 결과적으로 돕는 것입니다. 위기가 왔다고 해서 모든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끝이 난 것과 같은 형국에 처하게 되었을지라도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사무아, 엘, 하나님]이 들어 주십니다. 마침내 우리를 높이 들어 주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것입니다.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엘리 제사장은 그녀를 술 취한 여자로 치부하고 책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고 하셨건만 엘리 제사장은 한나의 짙어지는 안락같은 심정은 보지 못하고 결모습만 보고 그녀를 판단한 것입니다. 성숙한 성도는 형체를 비탄하기 전에 그의 생각과 마음을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엘리 제사장과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답답함을 마음에 쌓아 두면 병이 되어 갑니다. 그렇다고 사람들 앞에 털어 놓으면 탄식과 불만이 되고 문제가 더 복잡해질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탄다면 그것은 기도가 되고 문제가 해결의 길이 되고 복이 됩니다.

2. 한나의 기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그 이들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 했습니다. 한나의 이런 기도와 결단은 사무엘을 어린 시절부터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 사무엘로 하여금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기도로 자식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얻은 그 자식을 기도로 양육하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한나는 기도 뿐 아니라 어머니로서의 삶을 게을리 하지 않았고 사무엘을 좋은 목자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절대적인 헌신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를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어려움을 들어주시는 분이시기에 이러한 기도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교회 회복되고 나면 그 다음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나님께 어떻게 헌신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이므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시 116:1),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약 1:4).

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신뢰했습니다. 그녀는 믿음을 몸으로 보여준 위대한 여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말씀, 받은 말씀을 실천하는 가운데 기도의 열매와 믿음의 풍성한 복을 후대에게 몸으로 선포하는 본을 보여줘야 합니다.

맺는 말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미의 자기 집에 이르러나 열가나 그의 아내 한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삼상 1:19).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녀를 생각하셨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야 하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로 이야기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언제 어디서 기도를 하든지, 다 들으시고 응답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는 낙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도굴 안에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베드로는 감옥 안에서, 바울은 쇠사슬에 묶인 채로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성도에게는 낮이나 밤이나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언제 어디서나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는 넘지 못할 산이 없고, 풀지 못하는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을 선포하고 간절한 기도하면 모두 이루어질 것을 의심치 말아야 합니다. 기도는 끈기를 요창합니다.

우리는 약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 눈을 들어 기도해야 합니다. ‘여호와 차버트도, 만군의 여호와여!’ 최약의 상황에서도 오직 만군의 주 하나님만 신뢰하며서 목적 있고, 끈기 있게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주 전재홍 목사 설교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찬 양 예 배

| Sunday Worship Service | | |
|------------------------|----------|--------|
| 시 간 | 인 도 | 기 도 |
| Time | Presider | Prayer |
| I 오전 9시 | 장석남 목사 | 하인선 장로 |
| II 오전 11시 20분 | 조원영 목사 | 오광환 장로 |
| III 오후 2시 | 서명철 목사 | 오치열 장로 |

오후 5시 인도 장석남 목사, 설교 이종운 원로목사

목 도 다 함 께
 성 시 계 19:5 인 도 자
 찬 송 260(194) 다 함 께

기 도 안성현 집사

성 경 계 16:17-21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 "일곱번째 재앙-

마귀의 활동무대 심판" ... 설 교 자

* 찬 송 353(391) 다 함 께

* 축 도 설 교 자

* 주기도송 다 함 께

수 요 예 배

오후 7시 . 인도, 설교: 조원영 목사

기 도 주경자 권사

성 경 삼상 20:1-11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 "내 죄악이 무엇이며" ... 설 교 자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분당 피아니스트: 홍해란 · 김양연 · 박수강 · 김복화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설 교 조원영 목사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 찬 양 대 | | | | | 헌 금 송 | | | |
|---------|------|-----|--------|-------|--------|--|-----|-------|
| 예 배 | 찬양대 | 지휘자 | 오르가니스트 | 피아니스트 | 팀파니스트 | 찬양대 | 지휘자 | 피아니스트 |
| I 부 | 가브리엘 | 백경화 | 김현정11 | 박승기 | 윤주일 | 가브리엘 | | |
| II 부 | 할렐루야 | 류충기 | 차주연 | 김양연 | 윤주일 | 그레이스앤드벨 | 송재월 | |
| III 부 | 임마누엘 | 유태왕 | 김윤지 | 이주희 | 윤주일 | 아멘관현악단 | 임범창 | |
| 찬양예배 | 베들레헴 | 임범창 | 안효주 | 박수강 | 윤주일 |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삼상 1:18) | | |
| 영어예배 | 예루살렘 | | | | 지난주 성구 | | | |
| 수요 I 부 | | | | | | | | |
| 수요 II 부 | 시 온 | 최유현 | 김예지 | 조현정 | | | | |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 구 분 | 시 간 | 장 소 | |
|-----------|-----------------|------------------|----------|
| 주 일 예 배 | I 부 예 배 | 오전 9시 | 본당 |
| | II 부 예 배 | 오전 11시 20분 | |
| | III 부 예 배 | 오후 2시 | |
| | 찬 양 예 배 | 오후 5시 | |
| | English Worship | 오전11시20분 | 8층(802호) |
| 수 요 예 배 | II 부 예 배 | 오후 7시 | 웨스트민스터 홀 |
| 새 벽 기 도 회 | | 오전 5시 30분(월 - 토) | 본당 |

교 회 소 식

◆ 모 임

- 리브가 전도회 모임 / 9일(수) 오전 10시 서울대공원 매표소 앞
- 정기당회 / 9일(수) 수요일예배 후 가이오실
- 스데반회 야외행사 / 12일(토) 오전 9시30분 올림픽공원 "평화의 문" 집합

◆ 알 림

- 101호 예배 및 부서 모임
 중고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 신앙강좌부 : 주일 오후 12시40분
- 102호 예배
 사랑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
- 403호 예배
 영아부 :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 602호 부서 모임
 청년2부(다락방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새가족부 : 주일 오전 10시20분
- 603호 부서 모임
 소망부 : 주일 오전 10시-11시, 오후 1시-2시 / 청년1부(다락방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609호
 예배다부 성경공부 : 주일 오후 1시-2시30분
- 701호 예배
 유초등부 연합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706호 예배
 유아, 유치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802호 예배
 영어예배부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902호
 디아스포라부 성경공부 : 주일 오후 1시-2시
- 금주 수요예배는 오후 7시, 101호에서 한 번 드립니다.
- 의료 상담 / 이번주 상담은 정철웅(외과), 김동건(치과) 입니다. 주일 오전 10시10분 - 오전11시까지
 다음주 상담은 최용준(한방), 김관섭(영상의학) 입니다.
 1층 서적부에서 의료 상담을 합니다. ※ 전화 예약 010-8993-5558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
|--|
| 앞면에서 계속 13. 상담 안내 / 법률, 세무, 가정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10시30분-오후 4시 (310호) ※ 전화 예약 010-2376-3892 14. 구민회관 지하주차장 바닥공사 / 5월1일부터 6월10일까지 구민회관 지하주차장 바닥공사로 주차장 사용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결 혼 1. 양세현 군(1교구 양춘경 장로, 이인숙 권사의 장남)과 김나운 양(김학주 성도, 김양순 성도의 장녀) / 5월12일(토) 오후1시 녹양교회 지하2층 예배당(031-879-5100) / 1호선 녹양역1번 출구하차 후 택시 이용 ◆ 장 례 1.故 유봉여 권사 (2교구) / 3일(목) 별세, 5일(토) 발인 |
|--|

지난주 출석현황

| 주일1,2,3부 | 찬양예배 | 교회학교 | 주일예배 합계 | 수요예배 |
|----------|------|------|---------|------|
| 833명 | 230명 | 237명 | 1,300명 | 133명 |

수입, 지출 내역보고(4/29)

(단위 : ₩)

| 월 일 | 적 요 | 수 입 | 지 출 |
|--------|---------|------------|------------|
| 4월 29일 | 헌 금 | 45,436,750 | |
| " | 찬양운영비 | | 6,340,000 |
| | 교회학교운영비 | | 200,000 |
| " | 구 제 비 | | 400,000 |
| | 출 판 비 | | 270,000 |
| | 복리후생비 | | 36,286 |
| | 교통통신비 | | 346,320 |
| | 차량유지비 | | 1,278,777 |
| | 소모품비 | | 1,672,260 |
| | 수선유지비 | | 1,337,100 |
| | 환경유지비 | | 114,000 |
| | 식당운영비 | | 588,720 |
| | 합 계 | 45,436,750 | 12,583,463 |